numbers

vol. 274

대한민국 마약 실태

청소년, ‘마음만 먹으면 마약 구할 수 있다’ 84%!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① 한국인의 운세 서비스 이용 실태
② 기독교인의 타 종교 인식

[넘버즈 칼럼]
트럼프의 등장과 한국 개신교

2025. 2. 11.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청소년, ‘마음만 먹으면 마약 구할 수 있다’ 84%!

‘마약 청정국’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이 20명 이하일 때 붙여지는 명칭이다. 국내 인구 5천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약 1만 명이 그 한계선인데,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이 기준을 넘어섰고 2023년에는 처음으로 2만 명을 돌파하여 2만 7천여 명에 이르렀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10~20대를 중심으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들 연령대의 마약 사범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 정부는 마약 문제가 사회 전반에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해 출범 초기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러나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 사건’, 그리고 최근의 외국인 유흥업소 마약 일당 검거 등 마약 관련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넘버즈에서는 마약 범죄 실태, 마약 이용자의 정신건강 현황, 그리고 일반 국민의 마약 인식 변화를 통해 마약 문제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 깊숙이 와 있는지 그 심각성을 조명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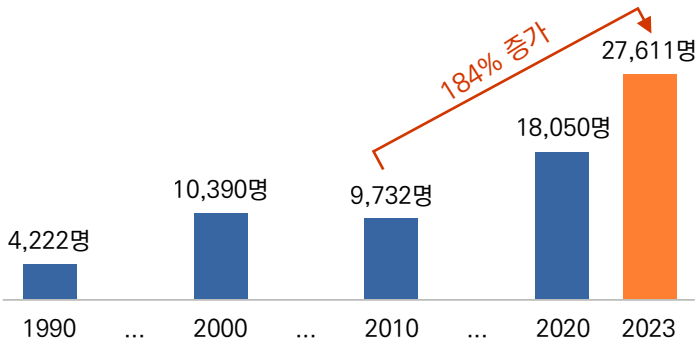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01 [마약 범죄 실태]
마약사범, 2010년 이후 18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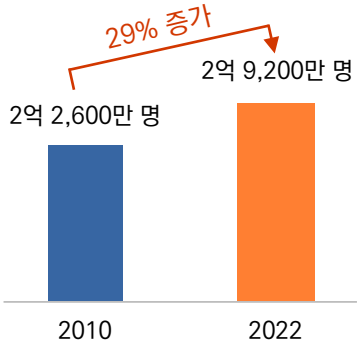
- 대검찰청은 1990년부터 마약류 범죄 관련 현황과 분석을 다룬 '마약류 범죄백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가장 최근 발표된 백서에 따르면 2023년 국내 마약사범은 총 27,611명으로 2010년 대비 184% 증가했다.
- 같은 날 발표된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2024 세계 마약 보고서'에 따르면 마약 남용 인구는 2022년 2억 9,200만 명으로 2010년 대비 29% 증가했다. 한국의 마약 추세가 세계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그림] 국내 마약류 사범 수



※출처 : 대검찰청, '2023 마약류 범죄백서', 2024.06.26.

[그림] 세계 마약 남용 인구
(최근 1년 이내 마약 사용한 15~6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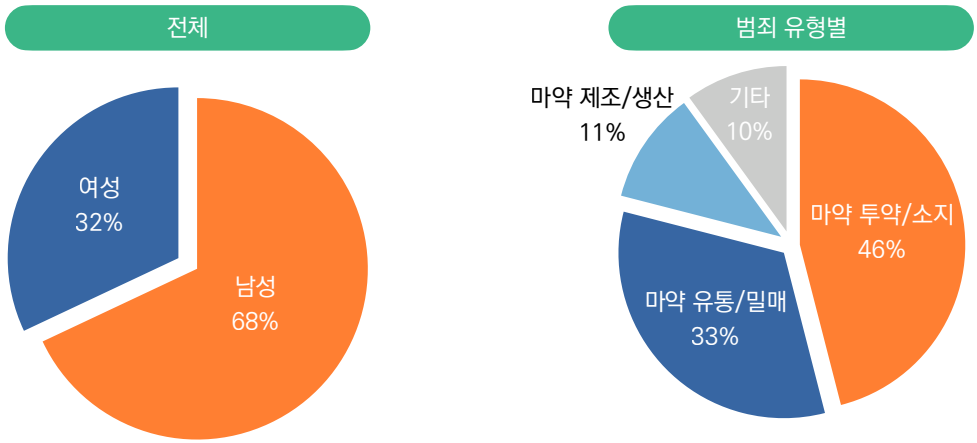


※출처 : UNODC, '2024 World Drug Report', 2024.06.26.

마약사범 : 남성 68%, 여성 32%!

- 마약사범의 특징을 살펴보면 남성이 68%로 10명 중 7명에 해당했고, 범죄 유형별로 보면 '마약 투약/소지' 46%, '마약 유통/밀매'가 33% 순으로 나타났다. 마약사범의 절반 가까이가 마약 사용자인 셈이다.

[그림] 마약사범 특성 (202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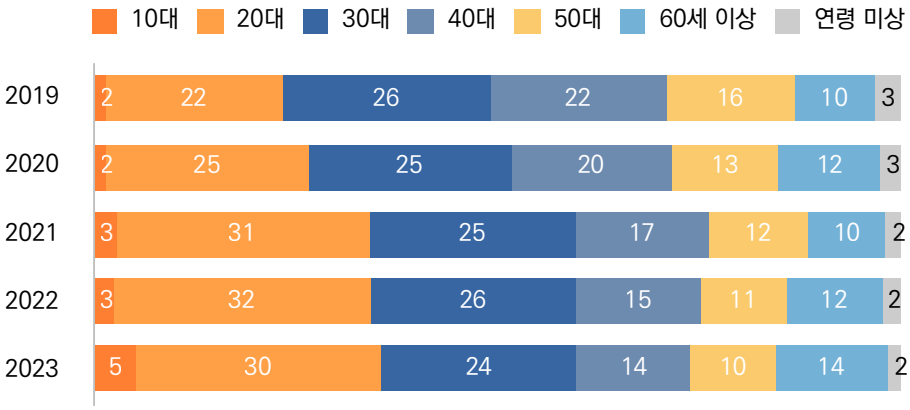


※출처 : 대검찰청, '2023 마약류 범죄백서', 2024.06.26.

10~20대 마약사범 비중, 최근 4년 사이 24%→35%로 크게 증가!

- 2023년 마약사범의 비중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가 3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30대(24%), 40대(14%) 순이었다. 10~20대의 비율은 35%로 3명 중 1명 이상, 20~30대 비율은 54%로 절반 이상이었다.
- 특히 10~20대 마약사범의 비중은 최근 4년 사이 24%에서 35%로 크게 증가했다.

[그림] 연령별 마약사범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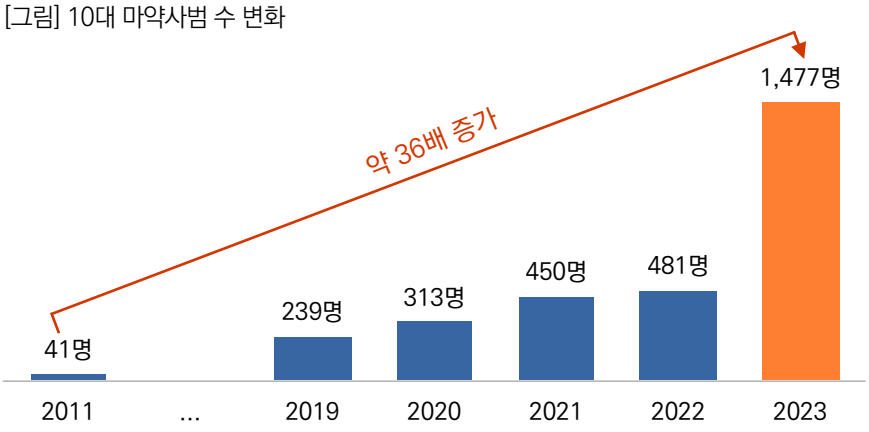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24', 2024.12.19.

10대 마약사범, 지난 12년 사이 36배로 급증!

- 이번에는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마약 이용 실태를 살펴본다.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2022년 481명에서 2023년 1,477명으로 1년 사이 3배나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2011년 대비 무려 36배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실은 젊은층의 마약사범 급증의 원인으로 코로나 이후 SNS 등 비대면 구매 경로의 확대로 접근성이 높아진 점과,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는 사례 증가를 지목했다.*

[그림] 10대 마약사범 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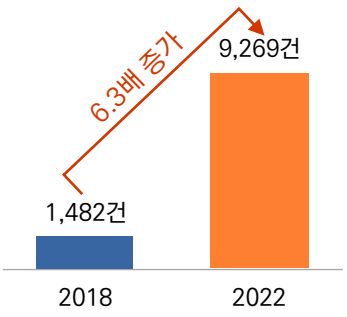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 2023.12.10.
※출처 : 대검찰청, '2023 마약류 범죄백서', 2024.06.26.
*위즈경제, '10~20대 마약범죄 급증…이유는 '이것' 때문', 2023.01.30. (https://wikyung.com/news/article?news=7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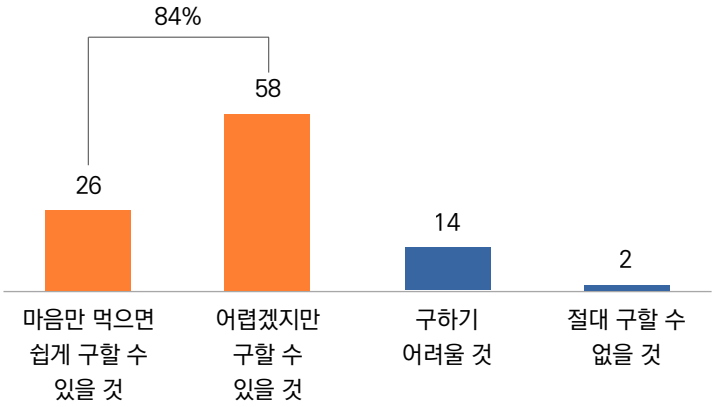
청소년, '마음만 먹으면 마약 구할 수 있다' 84%!

- 실제 온라인 마약 불법유통 적발 건수는 2022년 9,269건으로 4년 사이 6배 이상 증가해 비대면 마약 구입이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 또한 청소년에게 마약류 구입 용이성에 관해 물어본 결과 무려 84%의 청소년이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해 마약 이용의 심각성을 나타냈다.

[그림] 온라인 마약 불법유통 적발 현황



[그림] 마약류 구입 용이성 인식 (만 14~18세 청소년,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 2023.12.10. (만 14~18세 청소년 2,000명, 온라인 조사, 2023.05.30.~2023.12.10.)

02 [마약 사용 실태] 마약류 경험한 성인, 12.9%!

- 이번에는 실제 마약류를 경험한 사용자 실태를 알아본다. 식약처에서 만 19~59세 일반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마약 경험을 물어본 결과 우리가 흔히 마약으로 인지하고 있는 '중독 물질'을 한 가지 이상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3.1%로 나타났다.
- 또한 '살 빼는 약', 수험생을 위한 '공부 잘하는 약', 대마초나 필로폰과 같은 전통 마약류, 술집 등 유흥업소에서 유통되는 '술 깨는 약', 합성대마 등 광범위한 기준에서의 마약류 중 하나라도 본인이 사용해 본 적이 있는 경우는 12.9%로 성인 8명 중 1명꼴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마약류 사용 경험 (19~59세 성인)

중독 물질*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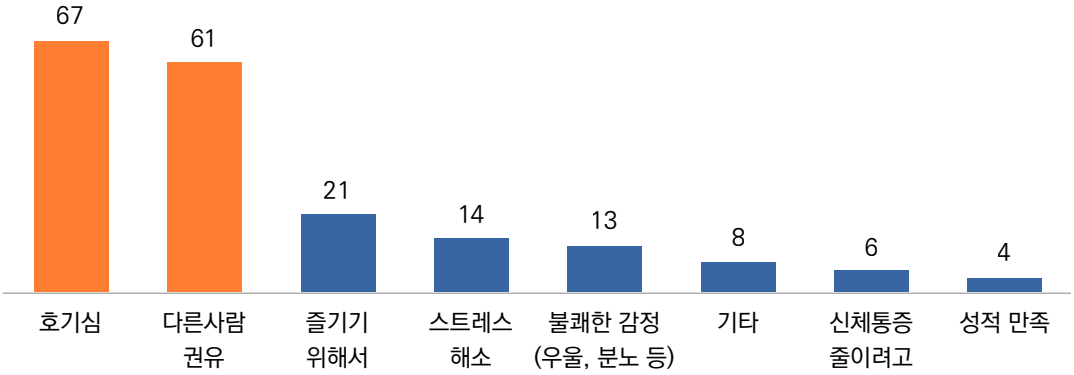
광범위한 기준에서의 마약류**
12.9%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 2023.12.10. (만 19~59세 성인 3,000명, 온라인 조사, 2023.05.30.~2023.12.10.)
*중독 물질 : 진정제, 대마초, LSD, 암페타민, 크랙, 코카인, (의사의 처방 없는) 마약성 진통제, 헤로인, 엑스터시, GHB, 메타돈, 마약버섯, 케타민
**광범위한 기준에서의 마약류 : 살 빼는 약, 공부 잘하는 약, 술 깨는 약, 합성대마 등 유사 마약류 포함

마약 경험의 시작, '호기심'!

-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건강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마약류 중독자, 마약 범죄 구속자, 마약 중독 재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2022년 공개했다(가장 최근 자료). 이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를 처음 사용한 이유로 '호기심'과 '다른 사람의 권유'를 답한 비율이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호기심을 잠재울 수 있는 마약의 유해성을, 특별히 10대 청소년이나 20~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조하는 홍보 활동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그림] 마약류를 처음 사용한 이유 (만 18세 이상 마약류 사용자, 중복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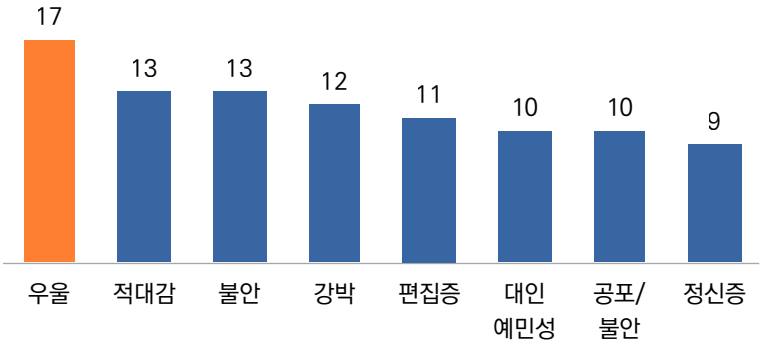


※출처 : 국립정신건강센터, '2021년 마약류 사용자 실태조사', 2022.05. (만 18세 이상 마약류 사용자 540명, 대면조사, 2021.09.03.~2022.0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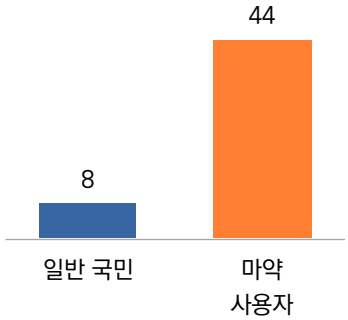
마약 사용자의 우울장애, 일반 국민보다 압도적으로 높아!

- 마약 사용자는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 마약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를 통해 항목별 비정상 판정을 받은 비율을 살펴본 결과 '우울'이 17%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적대감'(13%), '불안'(13%) 순이었다.
- 또한 심리 상담 치료가 필요한 '우울장애 유병률'은 마약 사용자 절반에 가까운 44%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국민 평균(8%)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그림] 마약 사용자의 정신진단 상태 (만 18세 이상 마약 사용자, 간이정신진단검사* 비정상 항목 진단자 비율, 상위 8위, %)



[그림] 우울장애 유병률 (우울증 선별도구** 10점 이상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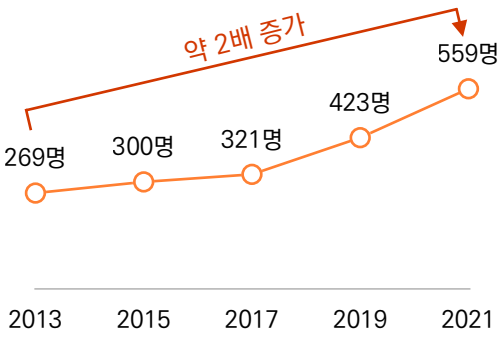


※출처 : 국립정신건강센터, '2021년 마약류 사용자 실태조사', 2022.05. (만 18세 이상 마약류 사용자 540명)
※출처 : 일반 국민 우울장애-유병률 질병관리청, '2023 국민건강통계-국민건강영양조사' 2024.12. (만 19세 이상 성인, 4,800가구)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 : 신체화, 강박증, 대인 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등 9개 차원으로 평가하여 전체 심도지수와 9개의 증상 척도를 T점수로 환산. T점수가 70점 이상이면 비정상적
**우울증 선별도구(PHQ-9) :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위한 9개 항목 구성. 0~4점 : 정상, 5~9점 : 가벼운 우울증, 10~19점 : 중간 정도 우울증, 20점 이상 : 심한 우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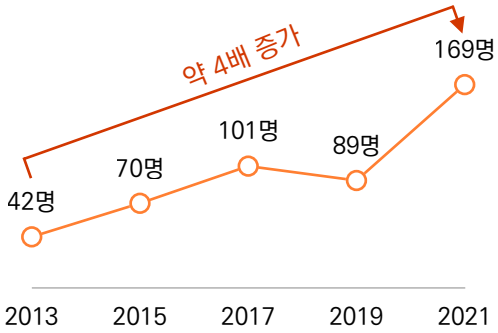
약물로 인한 사망자, 급증 추세!

- 한국중독문화연구소장 김지연 교수는 '마약의 끝은 죽음이다'라는 제목의 서적(2023)에서 실제 죽음까지 갈 수 있는 마약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실제 마약 등의 약물로 죽음에 이른 통계는 어떠할까? 통계개발원은 약물과 관련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약물 관련 사망통계를 발표하고 있는데, 최근 자료에 따르면 약물로 인한 사망자(마약류·불법 약물·의약품 남용) 수는 2013년 269명에서 2021년 559명으로 8년간 약 2배 증가했다.
- 또한 의료용 마약류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3년 42명에서 2021년 169명으로 지난 8년간 약 4배 증가했는데, 주로 졸피뎀 등 수면제와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로 인한 것이었다.

[그림] 약물로 인한 사망자 수



[그림] 의료용 마약류*로 인한 사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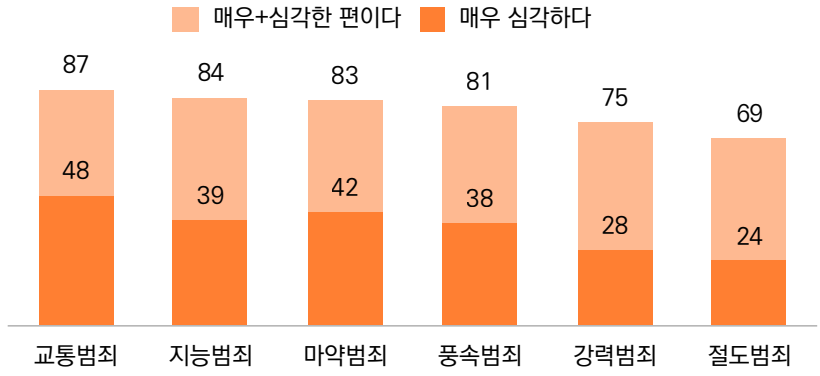


※출처 : 통계개발원, '약물로 인한 사망통계 분석', 2023.
*의료용 마약류 : 진정제, 수면제, 정신작용제, 마약성 진통제 등

03 [마약에 대한 국민 인식]
우리 국민, '마약범죄,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보다 더 심각하다'!

- 우리 국민은 마약범죄에 대해 그 심각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7가지 범죄 유형을 제시하고 각각의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했다. '교통범죄'가 87%로 가장 높았고, 사기 등의 '지능범죄'(84%)와 '마약범죄'(83%)가 그 다음을 차지했다. 우리 국민은 '마약범죄'를 살인, 강도 등의 '강력범죄'보다 오히려 더 심각하게 평가하고 있었다.

[그림] 범죄 유형별 심각성 인식* (일반 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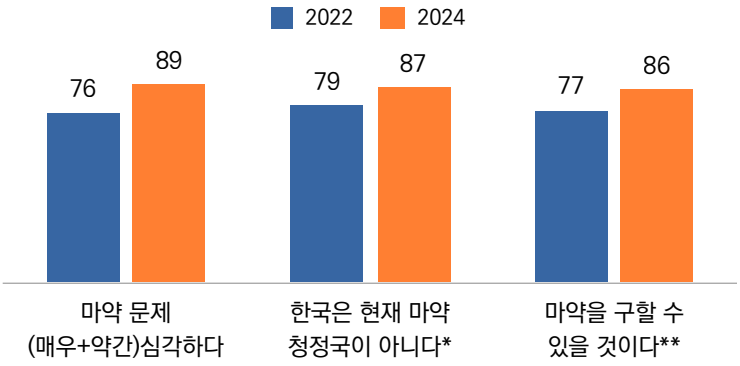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4 범죄인식조사', 2024.10.02.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4.07.26.~07.29.)
*4점 척도

‘한국은 현재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87%!

- 현 정부는 사회 전반적으로도 마약 문제가 심각해졌다며 출범 초기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출범 이후 2년 동안 마약에 대한 국민 인식은 어떻게 변화하였을까? 최근 한국리서치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0명 중 9명(89%)은 현재 한국 사회의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2년 전 조사 대비 13%p 증가했다.
- 또한 현재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는 응답은 87%, ‘마약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86%로 나타났는데 2년 전 대비 각각 8~9%p 증가한 수치를 기록해 전반적으로 국내 마약 문제 상황을 심각하게 보는 인식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마약 심각성 인식 (일반 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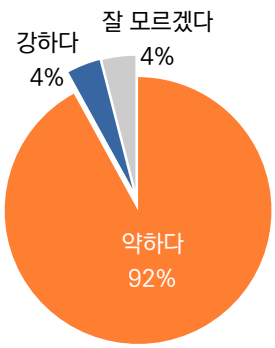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마약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2025.02.05.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4.12.06.~12.09.)
*4점 척도, ‘오래 전부터 마약 청정국이 아니었다’+‘과거에는 마약 청정국이었으나 현재는 아니다’ 비율
**4점 척도,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어렵겠지만 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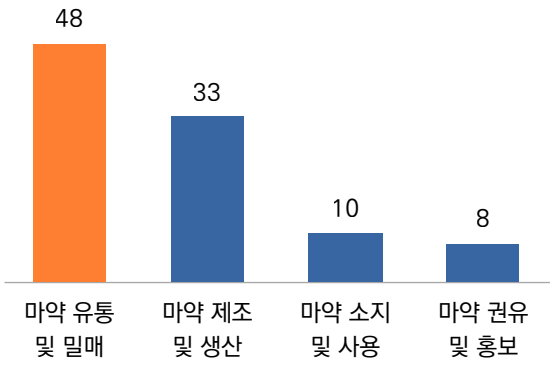
우리 국민 10명 중 9명, ‘우리나라 마약 범죄 처벌 수준 약해’!

- 응답자에게 2023년 기준 ‘전체 마약류 사범 중 구속된 사람의 비율’과 ‘마약류 사범 1심 선고 형량별 비율’ 정보(아래 Note 참조)를 제공한 후 국내 마약류 범죄의 처벌 수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10명 중 9명(92%)은 우리나라의 마약 범죄 처벌 수준이 약하다고 답했다.
- 또한 가장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 마약 범죄의 유형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48%)이 ‘마약 유통 및 밀매’를 꼽았으며, 그다음으로 ‘마약 제조 및 생산’(33%), ‘마약 소지 및 사용’(10%) 순으로 나타났다. 마약 사용자보다는 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전달하는 자들을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다.

[그림] 국내 마약 범죄 실제 처벌 수준 인식* (일반 국민)



[그림] 강력 처벌이 필요한 마약범죄 유형 (일반 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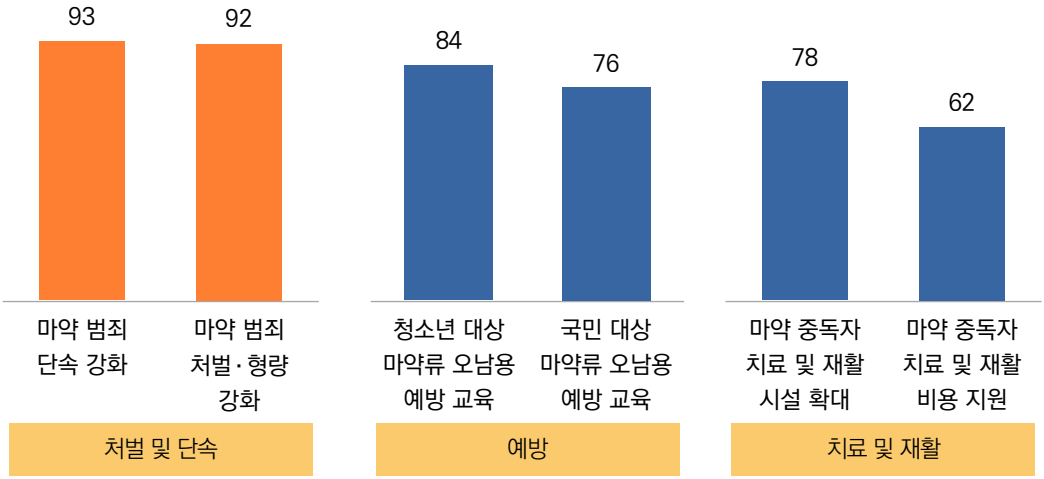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마약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2025.02.05.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4.12.06.~12.09.)
*4점 척도
Note) 2023년 전체 마약류 사범 대비 구속된 비율은 12%, 마약류 사범 1심 선고 형량별 비율은 집행유예(40.6%) 〉 3년 미만(30.7%) 〉 7년 미만 (10.6%) 〉 1년 미만(8.3%) 〉 기타(3.2%) 〉 벌금 (2.9%) 〉 10년 미만(2.5%) 〉 10년 이상(1.2%) 〉 사형·무기(0.0%) 등의 순 (2023 마약류 범죄 백서(대검찰청, 2024)

마약 문제 개선 방안 : '예방/치료·재활'보다 '처벌/단속'이 효과적!

- 국내 마약류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정책을 제시하고, 각 정책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단속 강화(93%)'와 '처벌 및 형량 강화(92%)'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전반적으로 '예방', '재활/치료'보다 '처벌/단속'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마약류 관련 정책 효과 인식 (일반 국민, '매우+약간 효과 있다' 비율*, %)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마약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2025.02.05.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4.12.06.~12.09.)
*4점 척도

넘버즈 인사이트

이번호 요약

1. 마약 범죄, 최근 급속도로 증가!

- 2023년 국내 마약사범은 총 27,611명으로 2010년 대비 1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이는 2010~2022년 세계 마약 남용 인구 증가율(29%)보다 훨씬 가파른 수치이다.
- 우리가 흔히 마약으로 인지하고 있는 중독물질 경험률은 3.1%였고, '살 빼는 약' 같은 광범위한 기준에서의 마약 경험률은 12.9%로 나타났다.

2. 청소년 마약 이용과 구입 환경, 성인보다 더 심각해!

- 10대 마약사범은 2011년 41명에서 2023년 1,477명으로 12년 사이 무려 3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에게 마약류 구입 용이성을 물어본 결과 무려 84%가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뉴스] 마약 '쉬쉬' 말고 교회가 관심 가져야 (CTS뉴스)

관련 성경 구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잠언 25:28)

목회 적용점

범죄는 발생했지만 수사기관에서 인지되지 않은 범죄를 암수범죄라고 하는데, 마약범죄가 대표적이다. 한 연구에서 발표한 마약범죄의 평균 암수율(검거 대비 실제 발생범죄 배수)는 약 29배 정도인데 의약품 오남용까지 포함하면 최대 350배까지도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2023년 마약 사용자(27,611명의 46%)에게 적용하면 400만 명이 훌쩍 넘는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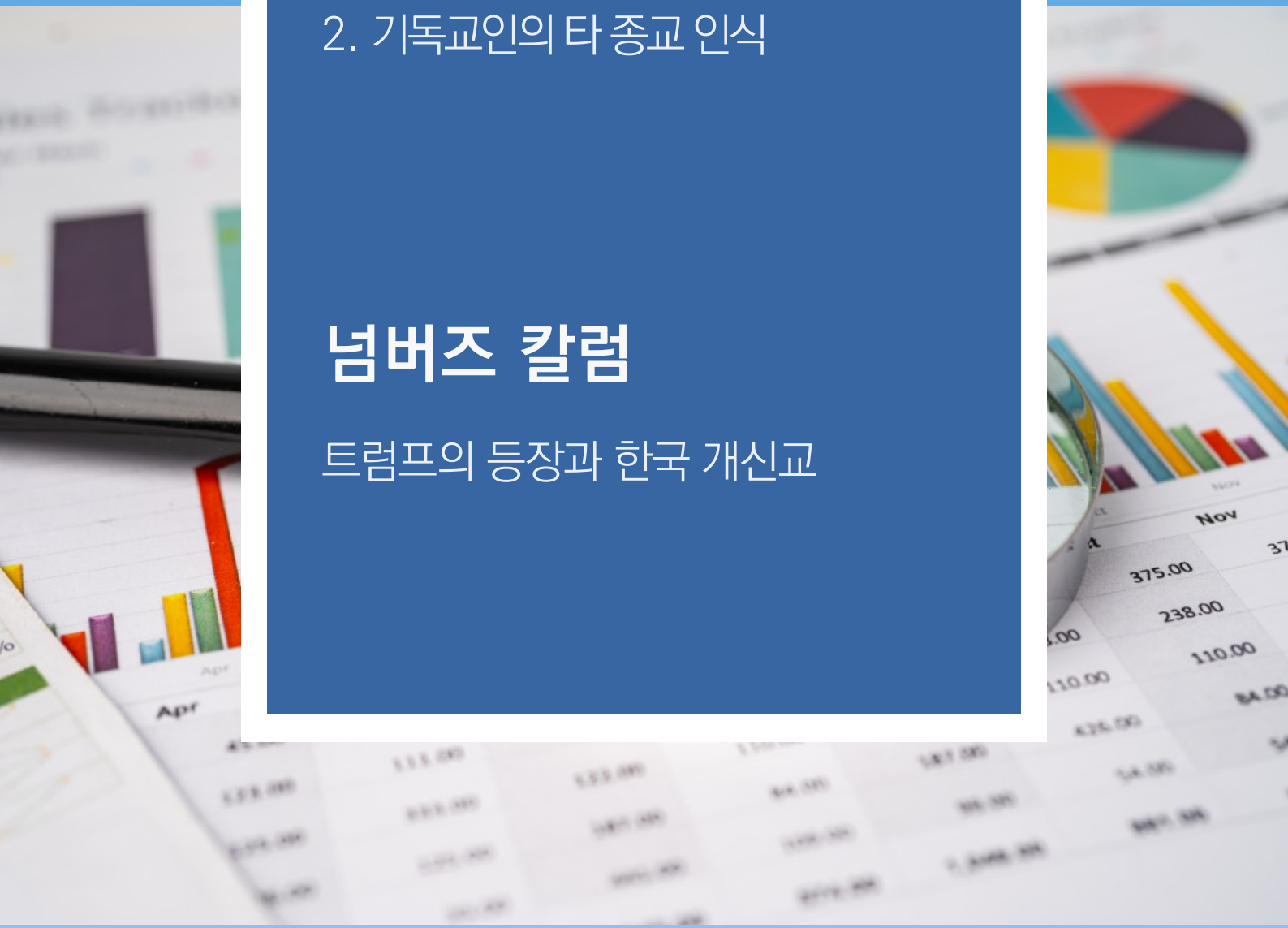
과거에는 일부 특수 계층에 국한되었던 마약 문제가 이제는 일반 대중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청소년의 확산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마약에 대한 경각심 부족과 윤리적 가치관의 약화가 지적된다. '마약 김밥', '마약 베개' 등 일상적인 상품에 '마약'이라는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공부 잘하는 약', '살 빼는 약'과 같은 표현으로 불법 약물에 대한 경계심도 약화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불안정, 정신적 스트레스와 같은 사회적 요인과 인터넷 및 SNS를 통한 마약 거래의 확산은 효과적인 감시와 규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마약 문제는 이제 한국교회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현재 많은 교회에서 중독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먼저 목회자들은 마약을 포함, '중독' 전반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마약의 위험성과 중독의 심각성을 교회 내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명확하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신적 공허감과 외로움으로 인해 마약 또는 중독에 빠지는 이들을 위한 상담과 돌봄 사역도 중요하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서 교회출석자 중 마약을 포함, 중독자 비율이 11%에 달하고 있는데, 교인들 사이에서 중독자들이 스스로 치유와 회복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따뜻한 공동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한국인의 운세 서비스 이용 실태
2. 기독교인의 타 종교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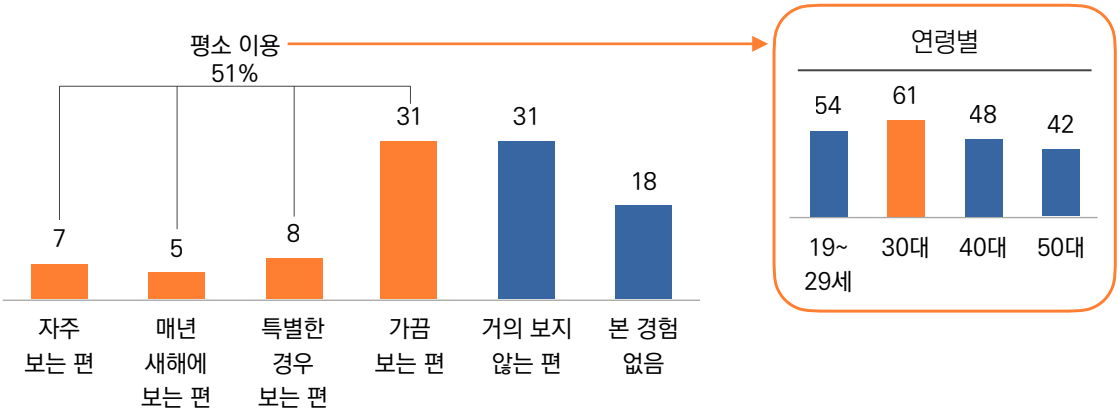
넘버즈 칼럼

트럼프의 등장과 한국 개신교

[한국인의 운세 서비스 이용 실태]
우리 국민 절반, 운세 서비스 이용!

- '운(運)'이란 '이미 정해져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을 뜻한다. 연말연시에는 새로운 기대와 불안한 마음으로 운수 서비스 이용이 많은 시기이기도 하다. 최근 새해를 맞이하여 '운세 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결과가 발표(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되어 살펴본다. 평소 운세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 정도(51%)가 평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이용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30대가 61%로 가장 높았다.

[그림] 평소 운세 서비스 이용 빈도 (일반 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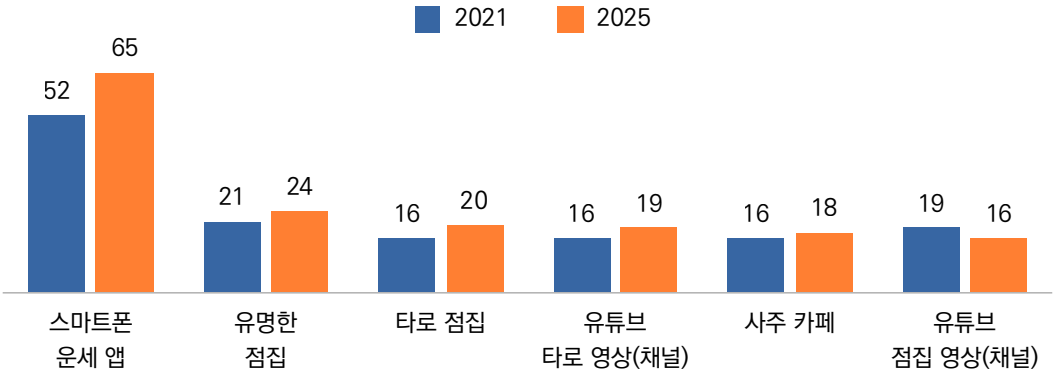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5 새해 계획 및 운세 서비스 이용 관련 조사', 2025.01. (만 19~59세 성인, 온라인 조사, 2025.01.08.~01.13.)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운세 서비스, '스마트폰 운세 앱'!

- 전통적으로 운세를 보기 위해서는 점집에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운세 관련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콘텐츠가 확대되면서 비대면 운세 서비스 이용도 점차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운세 서비스 유형별 이용 경험을 물어본 결과, '스마트폰 운세 앱' 이용 경험률이 65%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각 유형별 2021년과 2025년 이용률을 비교해보면 대부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운세 서비스 유형별 이용 경험 (평소 운세 서비스 이용자, 중복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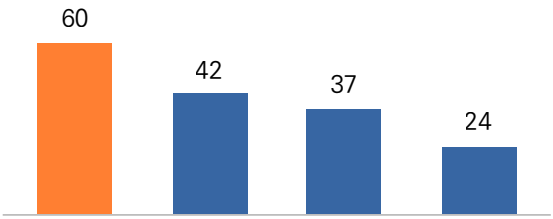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5 새해 계획 및 운세 서비스 이용 관련 조사', 2025.01. (만 19~59세 성인, 온라인 조사, 2025.01.08.~0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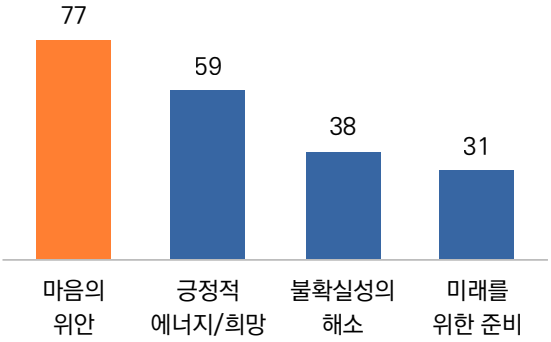
가장 관심 있는 운세, '건강'보다 '돈'!

- 관심있는 운세 유형별로는 '재물 운'(60%)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건강 운'(42%), '올해의 운'(37%) 순이었다. 4위인 '재테크 운'(24%)까지 고려하면 우리 국민이 가장 궁금한 운수는 결국 '돈' 관련 운수가 가장 많은 셈이다.
- 운세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으로는 '마음의 위안'(77%)이 가장 높았으며 '긍정적 에너지/희망'(59%)이 2위를 차지했다. 최근 경기 침체와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걱정을 해소하고 위안을 얻기 위해 운세 서비스를 찾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관심 있는 운세 유형
(일반 국민, 중복 응답, 상위 4위, %)



[그림] 운세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
(일반 국민, 중복 응답, 상위 4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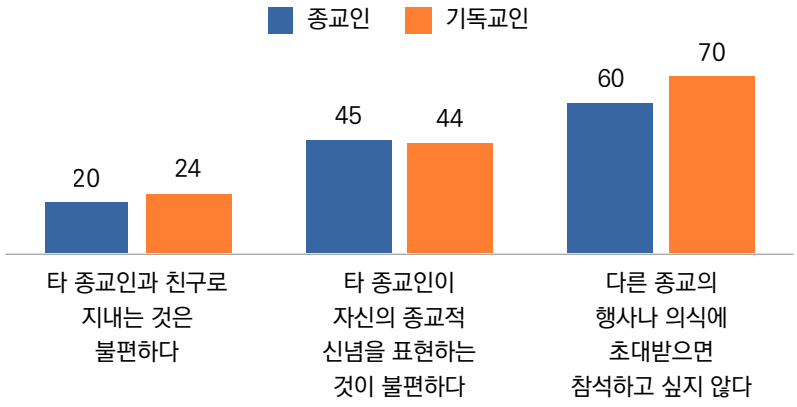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5 새해 계획 및 운세 서비스 이용 관련 조사', 2025.01. (만 19~59세 성인, 온라인 조사, 2025.01.08.~01.13.)

[기독교인의 타 종교 인식]
기독교인, 타 종교인에 대해 다소 배타적!

- 우리 국민의 다른 종교와의 공존 인식을 조사한 결과(한국리서치)가 발표되어 이를 살펴본다. 먼저 종교가 있는 응답자에게 타 종교에 대한 수용성을 물어본 결과, 종교인 5명 중 1명(20%)은 '타 종교인과 친구로 지내는 것은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타 종교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거나 '다른 종교 행사나 의식에 초대'하는 경우는 불편하거나 참석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각각 45%, 60%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다수의 종교인은 비교적 타 종교에 대해 거부감이 적지만 타 종교인의 종교적 신념을 접할 때 또는 타 종교 행사에 초대 받을 경우 불편하거나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기독교인의 경우 종교인 전체에 비해 타 종교인에 대한 배타성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림] 타 종교에 대한 수용성 (종교인, '매우+어느 정도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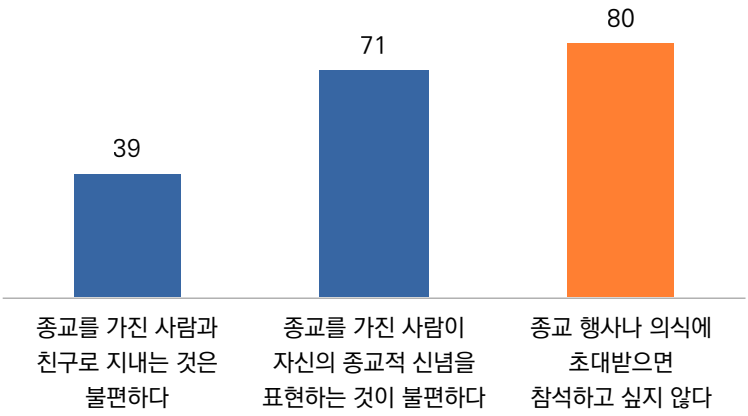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4 종교인식조사] 종교 간 갈등, 다른 종교와의 공존 인식', 2025.02.05.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4.11.22.~11.25.)

*4점 척도

무종교인 10명 중 8명, 종교 행사 초대받으면 참석하고 싶지 않다!

- 이번에는 무종교인의 종교에 대한 수용성을 살펴본다. 무종교인 10명 중 4명(39%)은 '종교를 가진 사람과 친구로 지내는 것이 불편하다'에 동의했으며, 10명 중 8명(80%)은 '종교 행사나 의식에 초대받으면 참석하고 싶지 않다'에 동의했다. 전반적으로 무종교인이 종교인에게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이 종교인이 타 종교인에게 느끼는 것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그림] 종교에 대한 수용성 (무종교인, '매우+어느 정도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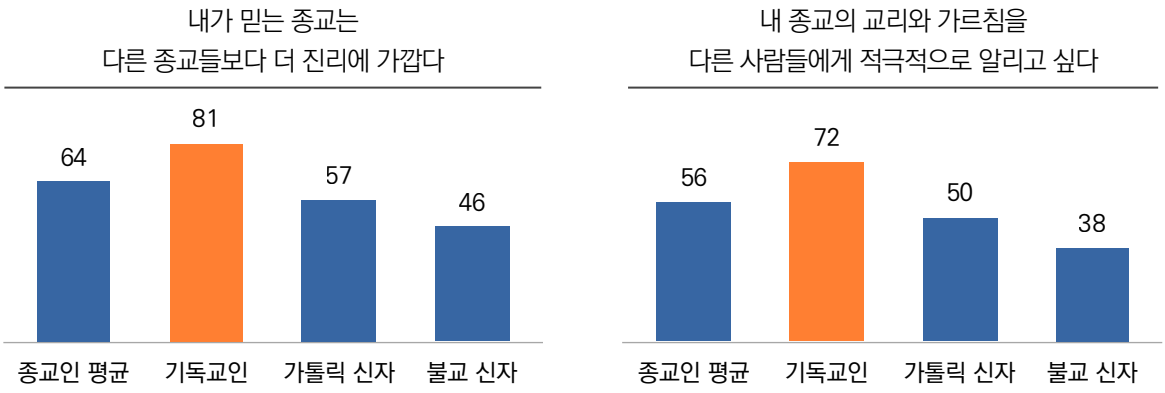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4 종교인식조사] 종교 간 갈등, 다른 종교와의 공존 인식', 2025.02.05.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4.11.22.~11.25.)

*4점 척도

‘내가 믿는 종교가 다른 종교보다 더 진리’, 기독교인이 타 종교인보다 크게 높아!

- 종교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종교인 중 64%는 ‘내가 믿는 종교는 다른 종교들보다 더 진리에 가깝다’에 동의했으며, ‘내 종교의 교리나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다’는 종교인은 56%로 나타났다. 이러한 종교적 신념은 기독교인이 가톨릭, 불교 신자보다 크게 높았다.

[그림] 종교적 신념과 전파 인식 (종교인, ‘매우+어느 정도 그렇다’ 비율*, %)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4 종교인식조사] 종교 간 갈등, 다른 종교와의 공존 인식’, 2025.02.05.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4.11.22.~11.25.)

*4점 척도

트럼프의 등장과 한국 개신교 “미국적 가치”와 한국에의 함의

안종철 교수
(이탈리아 베니스 대학교 부교수)

다시 미국 대통령이 된 트럼프

2025년 1월 20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가 추운 날씨와 강한 바람 때문에 실내인 미의회의 로툰다홀에서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11월 5일에 치러진 미 대선에서 전체 유권자 수에서 크게 승리하였으며, 경합을 벌인 중서부 여러 주에서도 승리하였다. 또한, 각 주별 투표 결과에 따라 선출되는 선거인단 수에서도 총 538명 중 312대 226명으로 전 부통령이었던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민주당 후보)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세하였다. 이는 죠셉 바이든(Joseph Robinette Biden) 46대 대통령의 노후한 이미지 때문에, 2024년 7월 후보직에서 사퇴하며 급히 등장한 해리스가 트럼프를 이길 수 없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는 이전 45대 대통령 재임(2017.1~2021.1) 기간 동안 막말 논란, 국제 문제에서의 다자주의 비판, COVID-19 대처 실패 등 여러 사안으로 인해 바이든에게 대통령직을 넘겼다. 그런데 4년 만에 재등장한 트럼프는, 바이든 시대에 해결하지 못한 미국 사회의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는 미국 사회 기저에서 열망하는 정치적 공동체에 대한 움직임을 명확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트럼프가 명확한 국익 위주의 정책을 통해 직전 대통령이었던 바이든과는 다른 노선을 펼칠 것임은 자명하다.

이 글에서는 트럼프의 등장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살펴보고, 경제와 안보는 물론 특히 한국, 그 중에서도 개신교와 국가의 관계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2025년 1월 말 현재, 현직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비판적인 일부 사람들이 국가 기관인 법원에 대해 폭력 행위를 서슴지 않는 현실에서, 관련 인사들이 파시즘적 태도를 보이는 개신교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몇 가지 분석과 예상을 하려고 한다.

트럼프의 취임이 세계에 미칠 영향

그의 취임연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간단하게나마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임연설에서 전체 미국 국민을 위해 통합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많은 표를 준 아프리카계와 라틴계 미국인들에게 감사를 표한 점은, 통합을 중시하는 대통령의 역할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취임식 전날인 1월 19일에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극적으로 휴전 합의되었고, 취임연설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전쟁을 끝내겠다고 한 점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쁜 평화라도 좋은 전쟁보다 낫다”는 명제가 있듯이, 전쟁이 종식된다면 세계는 한 걸음 밝은 미래로 나아갈 것이다.

둘째, 미국인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국경-특히 멕시코와의 국경-을 강화하고 군대를 파견하여 외국인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당시 이민자들이 멕시코를 통해 다수 유입되어 미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점을 공격해온 트럼프의 입장에서, 실제 취임 후 행정명령으로 바로 군대 파견과 미국 내 불법 체류자 혹은 서류 미비자들을 추방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점은 민주당이 오랫동안 문제 삼아온 사안일 것이다. 한동안 이러한 흐름은 계속될 것이며, 특히 작년에 일어난 불법 체류자에 의한 미국 내 여성 살해 사건으로 미국이 떠들썩해졌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비판해온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가 유죄 확정되기 전 기소만 되어도 적극적으로 추방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하 생략)

*칼럼 전문은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koreanchristianethics.com/%EC%A0%80%EC%9E%A5%EC%86%8C/2240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141호 (2025년 2월 1주)

– 탄핵에 대한 의견, 헌법재판소 탄핵 신판 과정 신뢰도,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인식 등

'이대남' 국힘 지지율, 민주의 2배… '이대녀' 민주 지지율은 국힘 압도

문화일보_2025.2.7.

[단독] 尹 뽑은 보수 분화 확인됐다…강성 뭉치고, 온건·중도 이탈

중앙일보_2025.2.11.

사회 일반

'고학력·사무직' 경력 끊긴다…2차 베이비부머 950만명 은퇴 시작

헬스조선_2025.2.5.

"그래도 대한항공·아시아나는 낫겠지"…참사 이후에도 북적인 공항, 이유 있었네

매일경제_2025.2.5.

밥 먹듯 밥 안 먹는 한국인…"10년간 쌀 소비량 15% 줄어든다"

경향신문_2025.2.3.

[기획] 마약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 마약 문제 확산 우려 속, 2년 만에 더 강화된 금기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5.2.5.

연애 실종 시대에도 '결정사'는 승승장구…혼인도 맞춤형 시대

연합뉴스_2025.2.7.

국민 92% "사회갈등 중 진보·보수 간 정치적 갈등 가장 심각"

연합뉴스_2025.2.5.

"삶의 질 만족도 52.7점…생활환경 높고 건강·자산 낮아"

연합뉴스_2025.2.10.

"정신질환 겪는 가족 돌봐야 할 때도"… 중요한 '자기 돌봄' 잊지 마세요

헬스조선_2025.2.9.

3년 새 18% 증가… 산후조리원 평균 지출액 287만원

헬스조선_2025.2.5.

학원비 27조의 저주…사교육비 1% 늘자 출산율 0.3% 떨어졌다

중앙일보_2025.2.6.

청년 • 청소년

사라지는 질좋은 일자리…청년 '쉬었음' 올해도 경고등

연합뉴스_2025.2.10.

[리빙톡] 틈만 나면 보는 '숏폼'…뇌가 썩는다?

연합뉴스_2025.2.9.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경제 • 기업

한은 “AI 도입하면 韓 GDP 12.6% 늘고 생산성 3.2% 높아져”
조선일보_2025.2.10.

“자소서 복붙 전 SNS 좀 봐라” 요즘 대기업, 컬처핏 따진다
중앙일보_2025.2.4.

출근후 잡담·웹서핑·담배타임 … 김대리도 박부장도 '월급루팡'
매일경제_2025.2.9.

작년 경상흑자 990억달러, 역대 2위…12월 124억달러로 최대(종합)
연합뉴스_2025.2.6.

"직장인 3명 중 1명은 괴롭힘 경험…절반은 참거나 모르는 척"
연합뉴스_2025.2.9.

직장인 퇴사이유 2위 '상사·동료와의 갈등'...1위는?
조선일보_2025.2.10.

건강

거식과 폭식의 끝없는 소용돌이…“살을 빼다 삶을 잃다” [건강한겨레]
한겨레_2025.2.6.

뇌졸중과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 50-60% 불과
데이터솜_2025.1.22.

기독교 • 종교

[2024 종교인식조사] 종교 간 갈등, 다른 종교와의 공존 인식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5.2.5.

“주중엔 카톡으로 예배, 주말엔 카페에서 기도”...개척교회의 변신
매일경제_2025.2.4.

기획기사 : [실버 시프트, 영올드가 온다], 동아일보

"생활비 얼마 썼냐 묻던 남편, 은퇴후 연금 받자 돈 걱정 안해" _2025.1.14.

유럽선 숙련 인력 '귀하신 몸'… 독일 68세 금융인 "정년 2년 지나도 금융회사 일해" _2025.1.15.

美소비 22% 노인 지갑서 나와… 돈있는 '영올드', 경제활력 무기로 _2025.1.21.

후원

후원 교회

경동교회, 곁에있는교회, 고현교회, 구파발교회, 과천교회, 광주금광교회, 광주다일교회, 광주벧엘교회, 광주서남교회, 광주양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남송교회, 노량진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덕신제일교회, 대구평강교회, 대덕교회, 대전도안교회, 대전대흥침례교회, 대전선창교회, 대전은평교회, 대신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산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라이트하우스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명성제일교회, 목민교회, 묘동교회, 문호교회, 미디에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범어교회, 빛과소금교회, 빛소금교회, 브니엘감리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덕교회, 상당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영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울홍성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남제일교회, 수원성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수원화산교회, 순복음강남교회, 순복음대구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양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새중앙교회, 세광교회, 세종선한목자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광교회, 영락교회, 영주제일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륜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울산다운공동체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이리신광교회, 일산광림교회, 잠실교회, 장산교회, 조암제일교회, 조양중앙교회, 주가행교회, 주님의 교회, 주안장로교회, 중동교회,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목동),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참사랑교회, 충신교회, 충현교회, 창동염광교회, 창일교회, 풍성교회, 포도원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한밭제일교회, 한소망교회, 할렐루야교회, 함께하는교회, 해전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후원 기관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AI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안미션, 서대문ESF, 성서유니온,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한국성서유니온, 한국IFCJ 가정의힘, (재)한빛누리, CBMC광주지식포럼, CBMC여수비지니스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후원 기업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남촌레저개발(주), 메가리서치, (주)소프트자이온, (주)시스코프, 신대종합모터스,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치윰, (주)하츠/(주)벽산, 하은커넥터(주) (가나다 순)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 후원 방법 (국내)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 후원 방법 (해외) <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PayPal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원로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 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숭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횃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안미션, (주)치윰, 크리스챤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연구소 소식

- 2024년 작년 한해 동안의 〈넘버즈〉를 모아 엮은, 〈2024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 VOL.6〉를 출판하였습니다. 책 출판을 위해 재정 후원해 주신 한소망교회(원로목사 류영모, 위임목사 최봉규)에 감사를 드립니다.
- 후원자에게 책을 발송했습니다.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은 연구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2-322-0726)

목회데이터연구소

제3차 목회데이터포럼, '한국교회 여교역자의 현실'

목회데이터포럼은 한국교회에 중요한 이슈를 연구하여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독자적으로 발표하는 포럼입니다.

1) 주제 : 한국교회 여교역자의 현실
2) 일시 : 2025년 2월 21일 금요일 오후 2시~3시 30분
3) 장소 : 연동교회 가나의집 4층 아가페홀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37)
4) 주요 내용

내용	발표자
목회자의 여교역자 인식과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정재영 교수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여교역자의 입장에서 본 보고서 함의 평가	김은정 목사 (예장 전국여교역자연합회 사무총장)

*실시간 온라인 중계 예정이며 현장 참석도 가능합니다.

현장 참석 신청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